

# SBA, 예스 24 와 중기제품 베트남 수출플랫폼 지원협력...베트남 플랫폼 내 '하이서울어워드'관 조성

2018-03-30, 전자신문, 박동선 기자

서울시 중소기업지원기관 서울산업진흥원(이하 SBA)이 플랫폼사와의 협력을 통한 중기제품 해외수출길 확보 노력을 이어간다.

SBA 측은 지난 28 일 서울 상암동 본사 14 층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유통플랫폼 예스 24(대표 김기호, 김석환)과 해외유통사 'Tan Loi My Trading(대표 천진)' 등과 베트남 유통시장 진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우수 중소기업제품들의 베트남 진출 및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해 협력한다는 뜻에서 체결된 것이다. 특히 Qoo10, Shopee 에 이어 동남아 시장 내 세 번째 협력플랫폼을 마련함으로써 우수 중기제품의 해외판로가 보다 안정적으로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SBA 와 예스 24 등은 협약 결과에 따라 '예스 24 비나(예스 24 베트남 플랫폼)' 내에 '하이서울 어워드' 상품관을 여는 것은 물론, 상품 유통판매 활성화를 위한 프로모션 및 홍보이벤트 등을 공동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서울산업진흥원 제공〉

김용상 SBA 유통마케팅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의 다양한 상품이 베트남 소비자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SBA 에서는 앞으로도 해외 각국의 바이어와 소비자들에게 우수 상품을 소개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SBA 는 오는 4 월 17 일 서울 양재동 aT 센터에서 '하이서울 어워드 종합인증상담회'를 개최, 우수 중기제품 발굴과 함께 중소기업-유통사 간 네트워킹 기회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 희망기업은 다음달 4 일까지 SBA 서울유통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 베트남 패션·의류시장 연평균 10.5% 성장...새로운 '블루오션'

2018-03-30, 스페셜경제 김새롬기자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베트남을 국빈방문한 가운데 베트남이 패션업계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최병오 패션그룹 형지를 비롯한 패션업계 CEO들 역시 이번 베트남 방문 경제사절단에 대거 동참한 것으로 알려지며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지난해 한국과 베트남 간 교역 규모는 639억 달러. 미국과 중국(홍콩포함)에 이어 세계 3번째이자 아세안지역 최대 투자대상국에 속한다.

아울러 섬유산업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베트남의 패션·의류 시장은 연평균 10.5%의 성장률을 보이며 가파른 성장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베트남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패션에 관심이 높은 젊은 층이 증가하고 있는 까닭이다.

베트남의 총 가처분소득은 2015년 기준 1,274억 5,6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2010년과 비교해 91.6%상승했으며 인구 또한 9,000만 명 이상 증가했다.

아울러 중산층 및 고소득층 인구 역시 2014년 1,200만 명이었으나 오는 2020년 3,3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중국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해외 패션 브랜드 역시 베트남 시장에 주목하고 있으며 실제로 ‘유니클로’, ‘자라’, ‘갭’ 등 글로벌 SPA 브랜드를 중심으로 60여 개 이상 브랜드가 베트남에 진출했다.

### 패션업계 CEO, 베트남 경제사절단에 대거 동행한 까닭은?

29일 관련업계는 차정호 신세계인터내셔널 대표,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 김익환 한세실업 대표, 조현상 효성 사장,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 등 패션기업 대표들이 문재인대통령의 베트남 국민방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의 경우 한국섬유산업연합 회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은 앞서 차 대표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동행하면서 계열사 대표로 동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차 대표는 지난 23일 열린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현지 이류 생산 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약속했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은 자사가 기획·생산하는 이마트의 자체패션브랜드 데이즈의 생산공장을 베트남에 두고 있다.

데이즈는 현재 국내 시장에서 자라·H&M·갭·유니클로 등 글로벌 SPA 브랜드를 견제하는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

최병오 형지 회장 역시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현지 공장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제품의 품질을 더욱 높일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신규 브랜드 진출과 더불어 의류·신발 생산을 비롯해 원부자재, 완제품 개발 업체

발굴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익환 한세실업 대표는 응웬 득 중 하노이 인민위원장과의 만남에서 베트남 비즈니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김 대표는 베트남은 경제적으로 투자 매력도가 매우 높은 나라라고 말하면서 우량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의사를 밝혔다.

이와 함께 조현성 효성 사장은 베트남 패션기업 패션스타의 브랜드 ‘라임오렌지’와 MOU(업무협약)를 체결하면서 베트남의 애슬레저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 "가자, 젊은 베트남으로" K-에듀의 도전

학령인구, 한국보다 2.6배 ↑ 교육열도 고조... "지속적인 성장... 외교분쟁 소지도 적어"

2018-04-02,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 K-에듀, 베트남 교육시장 진출 현황

회사명	진출 시기	사업 내용
이퓨처	2018년 3월	온라인 영어 프로그램 '스마트리' 공급 MOU
씨엠에스에듀	2018년 1월	융합사고력 증진 학원 사업
메가넥스트	2017년 4월	직무교육 콘텐츠 및 학습관리시스템 공급
청담러닝	2015년 5월	유·초등 영어 전문 학원 사업

그래픽: 김지영 디자인기자

머니투데이

국내 교육기업들이 신흥 교육시장으로 떠오르는 베트남에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국내 학령인구 감소세를 고려한 자구책으로 영·유아 및 청소년 인구비율이 높은 베트남 교육시장을 공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어콘텐츠 전문기업 이퓨처 (5,560원 ▲160 3.0%)는 지난달 22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한·베트남 비즈니스 파트너십'에 참여해 비엠티에듀텍과 온라인 영어프로그램 '스마트리' 공급을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 이퓨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 경제사절단에 동행, 이같은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이퓨처는 이번 MOU를 계기로 베트남 사업영역을 오프라인콘텐츠에서 온라인분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퓨처는 현지 도서유통업체 파하사를 통해 자사의 영어교재를 베트남에 공급한다.

수학·과학 전문기업 씨엠에스에듀 (8,950원 ▲10 0.1%)도 지난 1월 현지 교육기업 이그룹과 학원 프랜차이즈사업을 위한 계약을 했다. 이그룹이 베트남에서 씨엠에스에듀의 브랜드 및 콘텐츠를 활용해 학원사업을 담당하고 씨엠에스에듀는 학생 수에 따라 로열티 수익을 거둬들이는 사업모델이다.

메가스터디 (35,650원 ▲1000 2.9%)의 자회사 메가넥스트도 지난해 4월 이그룹과 베트남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직무교육 콘텐츠 수출 사업을 시작했다. 직장인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온·오프라인 교육콘텐츠 및 LMS(학습관리시스템)를 합작법인을 통해 베트남 기업들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교과목 교육분야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현지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유·초등 영어교육 전문기업 청담러닝 (15,250원 ▼100 -0.7%)의 베트남 학원사업도 순항하고 있다. 청담러닝은 2015년 5월 에이팩스 잉글리시와 손잡고 베트남에 진출했다. 지난해 베트남 전역의 청담러닝 학원 및 학생 수는 각각 45곳, 2만5000여명, 현지 학원사업 로열티 수익은 36억원을 기록했다.

이같은 국내 교육기업의 베트남 진출은 학령인구 비율이 높은 베트남 교육시장의 잠재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구통계 사이트 포플레이션피라미드에 따르면 지난해 5~24세의 베트남 인구는 2898만명으로 국내 같은 연령대 인구(1109만명)의 2.6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베트남의 총인구는 9541명이며 2059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퓨처 관계자는 “베트남은 학령인구가 많은 ‘젊은 국가’ 라는 점에서 교육기업들에 매력적인 시장”이라며 “연평균 6%대 성장을 이어가며 교육열도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 달리 외교적 분쟁 소지가 적다는 점도 강점”이라고 덧붙였다.